

國際化시대와 大學交流

權 寧 贊

(建國大 行政學科)

國際化時代의 한국 대학은 서로 다른 민족의 다양한 文化를 흡수·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韓民族의 文化를 다양한 世界의 文化圈에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야 할 새로운 課題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後進大學의 명예를 벗고 互惠平等主義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간 國際交流를 위해 質的·量的으로 革新的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序 言

우리는 머지않아 2천년대를 맞이한다. 돌이켜 보건대 20세기는 知識, 科學 및 技術의 發達에 있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變化와 繁榮의 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다. 科學技術文明의 눈부신 발전은 비단 한 국가뿐만 아니라 國際社會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고 個人生活향상에도 지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은 全地球的 規模의 여러 가지 問題나 人間生活의 本質에 관한 심상치 않은 문제들을 파생시켜 人類의 將來를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國際化時代를 살면서 지난 20세기의 意義를 잘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다가올 21세기의 世界를 내다보는 眼目으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오늘의 大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985년 8월 미국의 UCLA에서 개최되었던 世界大學協議會(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제8차 總會에서 주제논문을 발표했던 國際聯合大學總長 Soedjatmoko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다.¹⁾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 60여 개가 넘는 東西南北 각 지역 및 국가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大學이나 高等教育機關의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상호 간에

1)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Universities in an Independent World”, a paper presented by Soedjatmoko, Rector, United Nations University, at the 8th General Conference held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2 August 1985, p. 1.

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差異와 多樣性을 고려하건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고 정당화된 수 있는 蓋然性을 도출해 내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全世界의인 相互依存性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共同의 廣場을 찾아내야 할 必要는 꼭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國家도 그리고 어느 국가의 敎育 制度도 오로지 自國 차원의 解決策에만 국한하여 克服方案을 기대하기가 도저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가고, 실업, 기술발전, 국가안전보위 등과 같은 國內問題들도 모두 國際的 位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敎育者들도 自國民들이 지니는 基本的 價値에 맞는 場 속에서 스스로의 生存을 보위하기 위한 國際的 環境을 조성해 나가도록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敎育者들은 強壓의인 힘이나 그것의 꼬투리에라도 쉽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自然的인 能力을 유지하고 必要한 責任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은 『大衆敎育에 대한 社會的 要求와 고도로 專門化된 수준 높은 研究에 의한 새로운 知識 探索의 均衡을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大學人들은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대학의 國際的 遺産을 인식하고 思考와 道德的 價値 그리고 知識의 國際的 흐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대학의 共通目標을 지지·옹호하고 교수 및 학생의 국제교류나 다양한 學問分野의 실질적 내용과 연구방법을 서로 나누면서 지리적 공간이나 국경을 넘어 世界的인 交流를 하고 있기도 하다.

2. 知的 交流의 傳統

본래 배움의 세계란 歷史的으로 보더라도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人材를 모아들이고 또 人材들을 배출해 왔다. 古代 수메르인과 이집트인의 저술가들, 3種의 서로 다른 一神敎를 낳은 聖地, 플라톤의 아카데미, 아리스토텔레스의 林園學舍(Lyceum), 알렉산드리아의 博物館과 圖書館, 콘스탄티노플, 中國 등등이 그와 같은 學問世界를 형성했었다. 印度의 나란다, 페르시아의 콘데샤를, 그밖에도 學問의 中心들은 다마스쿠스와 카이로, 바그다드와 코르도바에 있었

던 것과 같은 이슬람 계통의 學問的 知識傳達機關에 대해서 교량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문의 중심들은 古典이나 古代의 學識들을 축적하는 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새로운 수학적·철문학적 및 기타의 학식들을 첨가하여 중세기부터 발전해 온 Bologna, Salerno, Paris Toulouse, Salamanca, Oxford, Cambridge, Heidelberg 및 Timbuktu대학 등에 전달해 주었다.²⁾

이와 같이 진화해 온 大學類型(university pattern)은 중세기 이후 東西南北의 文化로 확산되어 우리가 오늘날 보는 大學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大學의 모습을 보면 학생은 흔히 대학을 전전하면서 學問을 배우기도 하였고 서로 다른 文化圈의 학자들도 政治的 領域의 차이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交流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他人을 위하여 供與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간의 學問的·知的 交流는 전쟁 등으로 일시 중단되거나 침체된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다시 활기를 띠었으며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로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특히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의 탄생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하여 知的 刺戟과 함께 科學과 技術을 향상시키고 敎育 분야의 交流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국가에서 文化的·社會的 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3. 우리나라 大學敎育의 挑戰

우리나라도 2차 대전에서 패한 日帝의 식민 통치에서 解放되자 전후 政治·經濟·社會의 혼란 속에서도 끝없이 치솟는 국민의 敎育熱과 정부의 敎育立國 정책으로 각급 敎育機關의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는 세계에서 文盲率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그중 高等敎育 기관으로서의 大學發展은 괄목할 만하였다. 1960년대까지지만 해도 정치·

2) Martin Meyerson, "Presidential Address", paper presented at Quinquennial General Conference held by IAU, UCLA, USA, 12 August, 1985, p. 2.

경제·사회 및 기타 모든 면에서 後進國의 명어를 쓰고 몸부림치던 우리가 '70년대 이후의 고도 經濟成長과 이에 수반하는 社會的 近代化의 물결 속에 '80년대를 맞으면서 中進國의 선두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21세기의 先進國化를 지향하면서 국내·외적으로 開放·競爭 社會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挑戰에 직면하게 되었다. 大學은 이러한 巨大社會(big society)化에 따르는 고급인력의 供給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社會的 需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80년대의 세계를 脫工業化社會 또는 情報化社會로 명명하고 이른바 제3의 産業革命을 예고해 왔다. 우리도 20세기 말까지는 뒤늦게나마 脫工業化社會로 뛰어 들 것이 예상된다. 産業構造는 나날이 달라지고 '하드'에서 '소프트'로 轉換하며 尖端 과학기술 産業의 革命的 發展 등에 안간힘을 쏟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大學教育에 있어 이와 같은 급격한 社會的 變化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학이 침체해 있다는 診斷과 더불어 세 시대에 적응하고 이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改革을 역설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社會·經濟的 발전과 대학의 現實 사이에 심한 不均衡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은 量的·外形的 成長에 비해서 教育·研究의 質이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발전을 이끌고 날로 가속화하는 국제사회의 頭腦·教育 競爭을 견디고 이겨낼 만한 大學教育 및 研究의 秀越性 문제가 중대한 挑戰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전에 효과적으로 應戰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간 協力과 相互支援도 물론 중요하지만, 國際的 交流를 통한 대학간 이해와 상호 협력 또한 지금의 國際化時代의 대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속에서 研究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유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4. 大學의 國際的 理解와 交流

대학의 國際交流가 실속있으려면 대학 내의 國際的 理解度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적 이해의 內容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국제적 성격의 科學이나 學問的 知識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
- ② 他國民과 그들의 환경·국가·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 ③ 국제적 科學 및 學問研究의 협력과 교류
- ④ 국제적 紐帶關係, 相互依存性 및 전 세계적 문제의 인지
- ⑤ 국가간 상호이해

그밖에 大學이 지니는 國際的 位相과 연관된 다양한 認識에서 대학의 효과적 國際交流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大學은 대부분이 해방 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짧다. 따라서 수 백 년의 蒼然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는 외국 대학에 비하면 國際交流의 역사와 경험이 매우 일천하다. 물론 해방 이후 수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歐美를 비롯한 각국 대학에서 연구·수학하여 오늘의 大學發展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많은 대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과 學校 단위, 單科大學 또는 學部 단위, 혹은 學科 단위로 이른바 姉妹結緣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연중 끊임 없는 총·학장들의 내왕, 학생 및 교수교류, 교육 및 연구 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상대방 대학의 호의와 초청을 받고 '보내는 식'의 交流方式이 주를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80년대부터는 '주고 받는 식(give and take)'의 互惠主義에 입각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그동안의 양적 팽창 위주에서 이제는 질적 수월성의 문제로 內部的 葛藤과 苦悶

3) Walter Kröll, President of University of Marbur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 University Setting", a paper presented at the 8th General Conference held at UCLA, 12 August, 1985, p.1.

에 싸여있는 동안에도 도도한 國際化의 물결을 타고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점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수와 학생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우리 대학도 받아들이는 데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구미의 선진 대학들도 오랜 국제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유럽의 대학들은 미국 대학과의 北北交流(north-north exchange)는 경험도 많고 역사도 길어 문제가 적은 편이나, 선·후진국 대학간 교류인 北南交流(north-south exchange)에 있어서는 문제가 매우 복잡한 듯하다.

우리는 앞으로 외국 선진 대학과의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시켜야 하지만, 後進大學과의 교류에도 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大學交流의 方向과 問題

뒤늦게나마 大學의 國際交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後進大學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는 우리 대학으로서는 선진 대학들 또는 세계의 大學協議機構 등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도 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찍이 1950년 UNESCO의 지원 하에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世界大學協議會(IAU)⁴⁾는 세계 유수의 53개 대학에 의하여 발기되어 지금까지 약 1,000개의 세계 각국 대학을 會員으로 가입시켜 세계 대학의 UN이라는 別名이 붙어 있다. 우리나라도 '70년대말 정부 주선으로 서울대를 필두로 '80년대에 들어와 10여 개의 國·私立大學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北韓의 金日成大學도 등록되어 있다.

IAU는 처음부터 세계 대학들의 國際交流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30년 전에 國際教育交流

研究委員會(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Exchange : ICSEE)를 두어 대학간 국제교류 증진에 공헌하였고, 1980년 8월 27일 國際間 教育交流에 관한 첫 政策白書を 발표하였다. 이후 5년간 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및 미국 각 대학들의 海外留學評價事業(The Study Abroad Evaluation Project)을 수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1985년 8월 12일부터 1주일간 미국의 UCLA에서 개최된 제8차 총회에서 제2차 政策白書로 발표한 바 있으며, 많은 지역의 대학 대표가 '大學의 國際的 責任(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이라는 大命題를 놓고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전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대학의 國際交流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일부 중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白書는 근래에 와서 大學間 國際交流가 지난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음을 밝히고, 교류의 증진과 이에 대한 評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세계 모든 대학의 教育交流 활동에 지침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大學交流의 目標(goals), 主導機關(governance), 財源調達(funding), 互惠性(reciprocity)의 네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전체 표명을 하고 있다.⁵⁾

① 目標

대학의 國際的 教育交流는 지식과 문화적 자원의 共有, 사회적·과학기술적 혁신의 확산·보급과 채택, 역사·문화 및 생활 조건에 대한 이해 증진, 다양한 언어의 습득 그리고 교양 및 전공교육을 통하여 복잡하고 험한 세계 속에서 서로 간의 理解와 國際的 共存의 보다 나은 기반의 마련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은 公認된 教育目標의 달성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 학생과 방문교수 및 학자를 맞아들이는 대학들(host universities)은 이들을 學問共同體(academic community)를 살찌게 하

4) IAU 本部는 UNESCO 건물 내에 있다. 참고로 연락처를 명기해 둔다. 1, rue Miollis 75732 Paris Cedex 15 France. Tel.: (33-1) 45.68.25.45-Telefax: 47.34.76.05-Telex: 250615 IUB F

5) ICSEE, *Policy Statement II*, presented at the 8th General Conference held by IAU at UCLA, 12 August 1985, pp.1~5.

고 學問的 目的의 共同社會化와 아울러 異文化간의 疏通을 넓혀 주는 중요한 資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및 과학 연구에 주 목적을 두고 外國 留學을 하려는 학생이나 교수들은 자신의 文化的 背景의 中核·조정자로서 역할하게 된다.⁶⁾

② 主導機關(政策決定 및 組織)

大學의 교육 교류에 관한 機關 개입의 강도는 대학교육 기관의 통치기구가 받아들이는 관심도와 이를 인가하는 權限의 정도에 직결된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분야에서 나타난다.

- 학생과 교수들을 外國에 留學 또는 派遣하거나 外國 대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데 관한 광범한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
- 自己大學 學位課程의 일부로서 학생들에게 일정한 外國 留學期間을 허용하고 교수 요원이 外國에서 연구 또는 강의하는 기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정책

이와 같은 두 가지 분야의 정책이나 방침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最高當局과 行政部署長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學部나 學科의 교수진에서는 학생의 경우 外國 留學의 경험을 자기 대학의 學位制度 속에 통합시켜 살려주는 데 대한 學問履修方針(academic policies)과, 교수 요원의 경우 승진 등 대우와 관계되는 認定 등을 관장한다. 이와 같은 대학정책이나 방침이 外國 派遣研修計劃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유럽과 미국에서 조사·연구된 결과로 확인되었고, 1983년 7월 2일 유럽공동체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와 가입국 문교장관과의 회합에서도 大學教育 交流의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래서 문교장관들은 자기 대학에서의 學位나 資格 취득과 관계되는 制限의 外國留學 기간의 延長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학위 인정 및 연구 기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입국 내의 관계당국이 共同體 내의 다른 가입국에 유학하여 취득한 자격

및 이수과정을 인정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寬大性·融通性 원칙에 입각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결의는 적어도 전 유럽공동체 내의 大學間 交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분별있는 指針이 될 것이 분명하다.⁷⁾

③ 財源調達

경제적 불황 등으로 많은 국가의 대학들이 豫算緊縮 문제에 봉착할 때 國際交流 분야는 특히 상처를 입게 된다. ICSEE가 최근 5개국의 80개 外國派遣研修計劃에 대한 조사·연구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財政과 外換에 관련한 사항이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外國留學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의 평가 결과, 대부분 外國 유학의 비용이 국내 수학보다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資源이 부족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外國 留學을 사치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ICSEE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생과 교수 요원의 交流를 유지·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나 약속이 大學政策의 배움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大學間 國際交流은 보내는 대학과 받아들이는 대학 쌍방에서 모두 豫算을 마련해야 하는데, 大學 自體豫算의 편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대학 외부의 자출, 예컨대 國家的으로 또는 多國家間에 조성된 보조금·대여금·장학금 제도 등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요컨대 대학이 그 政策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⁸⁾

- 大學의 일반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현실성 있고 야심적인 量的 中·단기 目標을 國際交流와 관련시켜 수립
- 大學 自體財源과 더불어 外部財源을 모색(최근 상당 수의 산업화된 國家群에 대한 조사 결과, 많은 경우 財政的 이유로 外國 留學이 저지되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 강의 및 연구 목적을 위하여 外國에 가는 교수 요원의 解任·代替 및 交換 등에 관한

6) Ibid., p. 1.
7) Ibid., p. 2.
8) Ibid., pp. 3~4.

大學政策 수립

- 외국 대학과 費用分擔協定 체결 모색
- 教育交流을 위한 연구·조사의 활성화

④ 互惠性

大學의 教育交流 계획은 학생이건 교수 요원이건 보내고 받아들이는 大學이나 國家 사이에 주고 받는 (give and take) 互惠主義가 확고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의 國際的 大學協力에 있어서는 공평한 교류 속에서 서로 얻는 것은 있어도 빼앗기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教育制度가 다르고 財政 運營方式이 다른 외국 대학과의 교류는 단순하고 엄격한 의미의 互惠主義가 통용되기 어렵다.

특히 이른바 北南間, 富國과 貧國間, 또는 서로 다른 政治的·理念的 제도를 지니는 국가의 大學間 交流에 있어 흔히 심각한 문제가 개제되어 互惠性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인 相互利害 관계나 단순한 양적 측면의 互惠性을 떠난 質的 資源의 共同分擔 등에 바탕을 둔 特殊關係가 상호간 차이에 대한 충분한 先行認識과 더불어 성립되지 않는 한 성공적인 교류는 어렵게 된다.

人的 및 기타 資源의 不均衡, 특히 財政的 資源과 物理的 편의시설의 불균형이야말로 효과적인 國際間 大學交流와 協力を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학의 革新的 努力이 있어야 한다.⁹⁾

6. 結 言

國際間 大學交流가 성공을 거두려면 交流大學 쌍방이 그 목적이나 주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社會經濟的·政治的·文化的·學問的 및 行政的 障礙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양 대학의 책임있는 고위 당국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 대학내 행정기구와 단과대학, 학부 그리고 학과 단위에서 지지되고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大學의 國際交流를 증진시키려면 교류 쌍방 간의 互惠主義的 支援體制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특히 財政 부담에 限界가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南北 각국 간이나 全世界의 大學과 같은 機關間 또는 個人間 수준까지도 科學交流나 學問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多國的 國際機關들이 있어 국제적 組織網을 형성하여 회원자격 (fellowships), 奨助금 또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의 하나가 國際聯合大學(The United Nations University)이다. 이 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친 協調機關網과 연구조사 및 教育훈련 會員機關網을 갖추어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으로 세계 발전을 위한 國際的 教育交流 및 協力的 可能性에 대한 흥미있는 실례를 제시하고 있다.

國際化時代의 大學交流에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들 이외에도 언어, 여행의 자유나 이민 정책 및 두뇌유출, 외국 교수 채용에 관한 문제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허다하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實態를 보면, 교수 및 학생의 相互交流나 자료교환 및 공동연구 발표 등도 대학에 따라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大學交流의 國際化를 실감케 하고 있다. 交流方式도 學問的·財政的으로 구결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가 향상됨에 따라 互惠平等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제는 우리도 받는 것만큼은 주어야 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大學交流에 있어 이른바 先進國 대학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많으며, 또한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학오겠다는 학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準備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제화 시대의 韓國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先進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大學은 이제 異文化를 研究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歐美文化 중

9) *Ibid.*, pp. 4~5.

심으로 배워 왔고 그것이 오늘의 韓國 繁榮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歐美 이외의 文化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을 때가 되었다.

국제화 시대의 大學은 다양한 異文化의 흡수·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文化를 다양한 세계의 文化圈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민족의 精神的 發展을 위한 다양한 發想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異文化의 흡수와

소화를 통하여 발전은 촉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歐美文化를 어느 정도 흡수하여 소화한 韓民族이 그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국제화 시대의 물결 속에서 異文化와 交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歸結이기도 하다. 오늘의 국제화 시대는 創造的 大學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의 잘 계획된 國際交流는 대학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秀越性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